

『남사록(南槎錄)』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강동호*·양진건**

I. 머리말

II.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의 교육적 태도

III. 맺음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음 김상헌이 제주 안무어사 시 기록한 『남사록』을 토대로 그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음은 제주 안무어사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훗날 제주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굴림서원(橘林書院)에 제주오현의 한 사람으로 배향되어 제주 유림들에게 추송(追崇)된다.

그가 보인 교육적 태도는 첫째, 제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애민정신(愛民精神)이었다. 특히 제주사람들과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주인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점에서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가 안무어사 임무의 일환으로 시행한 시재(試才) 실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조 제주 교육에서 별시(別試)에 의해 제주인들이 과거에 입격(入格)한 예는 청음의 시재 실행이 처음이었다. 그러므로 청음의 시재 실행은 제주의 유림들로 하여금 조정의 배려를 처음으로 경험하여 감흥(感興)케 하였고 이로써

* 주저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습동기가 증진되어 결국 제주의 사풍증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가 보인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태도이다. 그것은 그가 제주를 주체적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모습이며 그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충암 김정을 추송하는 모습은 제주 유림들에게는 큰 모범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사문(斯文) 형성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교육적 태도로 인해 제주 유림들은 그를 굴림서원에 제주오현으로 배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청음 김상헌이 굴림서원에 배향된 이유를 제주에 끼친 교육적 영향의 측면으로 고찰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다시말해, 청음의 굴림서원 배향은 그가 평생 동안 보여준 의리정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숭모의 의미와 함께 제주에 끼친 교육적 영향이라는 양자(兩者)의 결과가 합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오현 배향에 대한 제주교육사의 주체성이 다소나마 확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청음 김상헌, 남사록, 안무어사, 굴림서원, 제주오현.

I. 머리말

청음 김상헌은 조선 중기 역사적 격변기에서 의리와 지조를 지킨 참선비였으며, 특히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에는 주화파(主和派)에 맞서 강력한 척화(斥和)를 주장한 인물이다.

청음은 자신의 출사 초기인 선조 34년(1601) 7월에 제주에서 발생한 길운절(吉雲節)과 소덕유(蘇德裕) 등의 민란이 발생하자 사건의 진상조사와 제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안무어사(按撫御使)로 파견되어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다. 청음은 이러한 인연으로 후일 제주의 유일한 사액 서원인 제주 굴림서원(橘林書院)에 제주오현(濟州五賢)으로 배향되었다.¹⁾

1) 청음은 1652년(효종 3) 83세로 사망하자, 이듬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정(文正)’의 시호가 내려졌다. 1656년 양주 석실서원이 완공되고 1661년(현종 2)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이후 정주 봉명서원(鳳鳴書院), 제주 굴림서원 등 전국 각처 수많은 서원에 향사(享祀)된다.

조선조 서원 배향은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후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는 교육적 동기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당시 열악했던 제주의 교육적 여건에서 볼 때 제주오현으로 일컬어지는 거유(鉅儒)들의 내도(來島)는 제주유림들에게는 그 자체로도 교육적 충격이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청음 김상헌은 후일 효종(孝宗)의 종묘배향신(宗廟配享臣)이자 도통(道統)의 핵심인물로 기록되는 서인계(西人系) 기호학파(畿湖學派)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안무어사로의 제주 방문은 제주인들에게는 반가운 교육적 만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음이 조선시대 제주교육사 및 교육사상사 영역에서 끼친 영향에 비해 청음과 관련된 제주교육사적 측면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²⁾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청음의 제주 안무어사 임무 수행 시 그가 남긴 『남사록(南槎錄)』을 토대로 그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를 살펴 보려고 한다. 『남사록』은 청음이 제주안무어사 수행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기행문으로서, 17세기 이전의 제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음의 제주 굴림서원 배향은 그의 절의정신(節義精神)과 의리정신(義理精神)으로 대변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추송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분히 중앙집권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교육사의 주체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음이 제주에 끼친 어떠한 교육적 영향 때문에 그가 굴림서원에 배향 될 수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제주 교육사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청음의 어떠한 교육적 태도가 제주 유림들에게 모범으로 다가왔으며, 그러한 태도는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면에서 『남사록』은 그가 제주와의 인연 중

2) 조선시대 제주 오현의 한 사람인 김상헌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양진건의 「濟州 五賢의 教育活動 研究」에서 다섯 명의 오현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상헌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양진건, 「濟州 五賢의 教育活動 研究」, 『탐라문화』 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8.

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의 서원배향의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남사록』에 관한 연구는 몇 편 있었다.³⁾ 그러나 그것은 기행 문학적 요소에 주안을 둔 문학적 연구였다. 그 내용을 고찰함에 있어 청음의 사상이나 교육적 문제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교육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사실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는 『남사록』을 분석·접근하는 방향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사록』을 교육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선조 제주 교육사의 영역에서 제주 오현이 제주에 끼친 실질적인 교육적 영향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는 그 출발점이라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3) 『남사록』에 대한 연구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 대략적인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것은 송희경의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송희경, 「金尙憲의 節義意識과 人文精神에 關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박준호, 「제주도와 관련된 기행록 및 遊記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제7집, 대동한문학회, 1995.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南僿錄』 고찰」, 『탐라문화』 제2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왕소명, 「김상헌의 『南僿錄』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南僿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임홍선, 「김상헌의 『南僿錄』」, 『論文集』 제23집, 제주교육대학교, 1994.

최두식, 「『南僿錄』 소재시의 해양소재연구」, 『석당논총』 제18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원, 1992.

홍기표, 「淸陰 金尙憲의 『南僿錄』 소재 기사 오류 및 쟁점」, 『한국사학보』 40집, 고려사학회, 2010.

황만기, 「『南僿錄』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작가의식」, 『동방한문학』 36집, 동방한문학회, 2008.

II. 『남사록』⁴⁾에 나타난 청음의 교육적 태도

앞서 언급했듯이 『남사록』은 청음이 길운절·소덕유 모의 사건으로 인해 안무어사로 제주도에 파견되어 수행하였던 공적인 임무를 염두에 두고 1601년 음력 8월 14일에서 이듬해 2월 14일 복명하기까지 체험한 내용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 중 청음의 제주 체류 기간은 1601년 9월 22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 제주 조천관(朝天官)에서 출발할 때까지의 약 4개월의 기간이다.

청음에게 부여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왕명으로서 제주 민을 위로하기 위한 교서(敎書) 반포와 한라산 산신(山神)에 대한 제례, 모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이었다. 둘째는 왕명 이외에 왕의 재가를 받아 비변사(備邊司)에서 내린 17개 조목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청음의 『남사록』에는 이러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청음은 이전의 제주 관련 자료⁵⁾를 인용하면서 제주의 지리적 위치, 역사, 기후, 언어, 풍속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⁶⁾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의 교육적 태도는 첫째, 학자관료로서 그가 보인 애민정신(愛民精神)이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이상적인 교육목표는 수기인치(修己治人)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사상을 기반으로 여진 정치를 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학문에 전념하며, 특히 자신의 몸(身)을 닦고 학문적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학문과정의 단계로 삼았다(居敬窮理). 과거에 합격하여 정치인이 되었을 때는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애썼다. 조선의 참 선비들은 이러한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정치를 이행하였으며, 김상헌 역시 평생에 걸친 관료 생활 동안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제주 안무어사로서의

4) 본 연구에서는 홍기표(洪琦杓)의 역주에 의해 제주문화원에서 2008년과 2009년에 발간한 『역주 남사록 상·하』권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5) 『남사록』에서 청음이 인용한 제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주지지(地誌)』,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충암(沖庵)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도근천중수권문(都近川重修權文)』·『존자암중수기(尊者庵重修記)』, 백호(白湖)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冥小乘)』 등이다.

6) 『남사록』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남사록』(홍기표 역, 상) 13-16쪽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역할은 그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행한 공무(公務) 수행으로써 그의 정치관을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제주의 실정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제주민을 애민정신으로 돌보고자 했던 그의 모습에서 ‘수기치인’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에서 시행했던 시취(試取)를 통한 문풍증진(文風增進)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조선조는 흥학(興學)을 최우선으로 한 사회로써 여러 교육 시설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였다. 조선의 유생(儒生)들은 과거를 합격하여야만 지배층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이상과 교육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만 했다. 그런데, 제주는 지리적 환경 및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과거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로 조정에서는 어사를 파견할 때 제주지역의 시재를 실시하여 나람의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 제주의 어사시재(御使試才)는 인조 조(仁祖朝) 이후에 그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전에 어사가 시재를 시행한 것은 청음의 안무어사 시(時)를 포함하여 두 번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청음의 시재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청음의 어사시재에서 처음으로 제주 별시(別試) 입격자(入格者)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무어사로서 청음의 시재 시행은 제주의 유림들로 하여금 조정의 배려를 처음으로 경험하여 감흥(感興)케 함으로써 제주의 문풍증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음이 제주에 끼친 교육적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로 청음이 『남사록』에서 보여준 제주에 대한 명확한 역사·문화의식 또한 중요한 교육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음은 기존 자료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제주를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시각이 담겨 있는 신념의 표현이며, 이러한 태도는 제주유림들에게 큰 모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불어 도학 정신에 입각하여 충암(沖庵) 김정(金淨)을 추송하는 모습에서 제주의 사문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남사록』에 나타난 그의 교육적 태도 혹은 선비정신은 더

분석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제주민에 대한 애민정신

안무어사로서 청음의 임무는 역모 사건으로 인해 불안정한 제주의 민심을 달래고, 비변사에서 내린 17개의 조목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비변사에서는 제주의 여러 가지 병폐(弊癘)를 확인하여 보고하거나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음이 보인 태도는 뚜렷한 애민정신이었다.

내가 말하기를, 서리(胥吏)들은 완고하며 간교해서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서울에서도 오히려 심한데, 하물며 해외에 멀리 떨어진 곳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상하다 여길 것은 못된다. 내가 지방민을 보니 겉으로는 어리석고 민첩하지 못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슬기롭고 지혜롭다. 일찍이 자신들의 곤궁하고 딱한 처지와 수령(守令)에게 본받을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하나하나 모두 말이 들어맞고 매우 조리가 있었다. 또한 의리(義理)를 들어가며 사람을 감동시켜 경청하게 하기도 하니 전연 어리석고 경솔한 부류들이 아니다.⁷⁾

청음의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조선시대 중앙 사대부 대부분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교화(教化)가 덜 미친 미개한 지역, 미신을 숭상하는 풍속이 비루한 지역’ 등이었다. 예컨대 제주 오현으로 추앙되는 충암 김정과 동계(桐溪) 정온(鄭蘊)은 제주에 대해 ‘도정을 떠나 야만의 지역에 깃들다’⁸⁾거나, ‘바다에 들어온 지 9년이 되어 도깨비와 무리가 되었다.’고 표현하였다.⁹⁾ 물론 이들은 유배인이기 때문에 김상헌과 인식이 다를 수

7) 『남사록』 上, 앞의 책, 99쪽, “余謂胥吏之頑黠者 不顧廉恥 掠人財物 在輦不猶甚 況海外絕域 無足怪也 余見土人 外似愚蠢 而內多巧慧 嘗言其自己困苦之事 守宰無狀之實 一一貫穿 甚有條理 且雜以義理 動人傾聽 斷非全然鹵莽之類.”

8) 『沖庵集』 卷3, 詩, 「去國」, “去國投蠻徼”

9) 『桐溪集』 卷2, 書, 「答林樂翁問」, “鼓鼓子入海九年 魍魅與爲徒.”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제주에 대한 중앙과 사대부의 판단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조선조 오백년 동안 제주는 절해고도의 최악의 유배지였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제주로 오는 것을 꺼렸으며, 목민관으로서의 부담도 좌천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제주 바다를 건너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¹⁰⁾에 서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당시 상황은 제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때이기도 하였다. 김상헌의 내도 원인이 된 길운절·소덕유의 역모사건으로 인해 조정에서는 제주도의 읍호를 역향(逆鄉)으로 강등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¹¹⁾ 물론 이 조치는 이항복(李恒福)의 반대로 면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예를 통해 제주도에 대한 중앙의 경직된 인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된다.¹²⁾ 이러한 때에 김상헌은 제주도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제주도민들이 김상헌을 존경하게 되었음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위 인용문의 언급은 충암 김정이 “인심(人心)이 거칠고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일삼으며 염치가 무엇인지 모른다.¹³⁾”는 말을 부정하면서 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뒤이어 “왕의 교화가 펼쳐져 날로 착한 풍속에 이르게 되었음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 이익을 일삼고 염치를 모른다는 것들이 앞뒤로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도도함이 이와 같다. 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¹⁴⁾”라고 말한다. 왕의 교화가 점점 펼쳐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육(교화¹⁵⁾)의

10) 추사 김정화가 제주 유배시절 그를 방문하기 위해 세 번이나 제주도 찾았던 소치 허련이 헌종의 물음에 답한 내용이다. “하늘과 맞닿은 큰 바다에 거룻배를 이용하여 왕래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운명을 하늘에 맡겨 버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57쪽.

11) 『宣祖實錄』 24卷 34年 8月 壬午 「初濟州將議降號」.

12)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227쪽 참조.

13) 『남사록』 上, 앞의 책, 98쪽. “沖庵錄 人心鹵莽 漁父之利 不知廉恥 爲何事”

14) 『남사록』 上, 앞의 책, 99쪽. “安知不由漸染王化 日就善俗之致也 若其漁利爲事 不知廉恥 則前後承流者 滔滔皆是 上行下效之語 豈誣也哉.”

15)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교화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작용”을 일컫는다. 위의 예문에서 청음이 언급한 측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판단된다. 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음의 이러한 태도는 학문의 원칙 혹은 바탕의 측면에서 지도자의 모범을 중시하는 『대학(大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윗사람의 모범과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실한 수용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에 술선수범하고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하게 한다. 특히 본분의 확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¹⁶⁾

청음은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모범,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기본적인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인간의 착한 본성에 대한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무엇보다 착한 본성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만남의 참다움을 결정하는 표준이며 타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존중감이다. 교육자가 이러한 애정을 지니고 피교육자를 대할 때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적 풍토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애정의 필요성은 특히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대할 때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이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김상헌의 믿음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¹⁷⁾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청음은 제주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애쓴다. 청음은 평생에 걸친 관료생활 동안 민생의 안정을 매우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러한 그의 정치관과 대민관(對民觀)은 젊은 시절의 공무 수행인 제주 안무어사 때서부터 잘 드러난다. 청음은 후일 “민생의 고락(苦樂)은 국가의 안위가 매여 있다.”¹⁸⁾거나,

만 교화라는 용어를 이와 같은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강봉수와 황금중 등은 이의를 제기한다. 강봉수는 유교에서 교화란 단순히 이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인간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판단한다. 황금중은 조선시대 교화 대상에는 “사족(士族)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인식을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교화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처럼 민(民)에 대한 교화는 그것을 벗어나는 의미를 지니든지 모두 윤리·도덕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강봉수, 『유교 도덕 교육론』, 2001, 원미사, 123-168쪽 참조. 황금중, 「조선시대 교육의 성리학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과제」, 『한국교육사학』 29집, 2007, 236-239쪽 참조.

16) 신창호, 『한글 대학·중용』, 원미사, 2015, 54쪽 참조.

17) 양진건, 앞의 논문, 1988, 241쪽.

“민심은 지극히 신령스러운 것인 만큼, 안위(安危)의 조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험할 수 있습니다.”¹⁹⁾라고 하며 국가안위의 시금석을 ‘민심’으로 보고 민생안정을 매우 중요시 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²⁰⁾

대개 육지 사람들은 비록 바닷가에 사는 자라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면 제주에 가는 것을 죽는 땅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두 피하고자 한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비록 아무 일 없이 가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육지로 나가는 것을 천당(天堂) 바라보는 듯하다. 이는 내가 왕래할 때 몸소 느꼈던 바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섬 안의 실상이 얼마나 곤궁하고 고통스런지 대개 상상할만하다. 관아(官衙)의 아전들이 곤궁한 백성을 못살게 하는 일이 어느 때나 없어질는지.²¹⁾

청음의 애민정신과 대민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인용문이다. 백성들의 어려운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고통 받는 이유는 고질적인 문제로써 특히 아전들의 특권의식과 횡포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마지막 문장에서 정치인이자 목민관으로서 당시의 현실에 대한 개탄(慨歎)과 함께 반성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인식은 “비록 축산(畜產)의 성쇠가 온 섬의 운수(運數)에 관계된다고 말하기는 하나, 그 실상은 관리의 탐욕과 청렴 여부에 달려 있다.”²²⁾라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장부를 취하여 조사하니 정월부터 7월까지 죽인 소가 많게는 150두에 이르렀다. 또 사둔마(私屯馬)가 적어진 이후로는 수령들이 말 대신 (소를) 몰아 오게 하며, 또한 육지에서 전쟁의 여파로 밟히는 소가 극히 적어지자 공사(公私)간에 팔려나가는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민가에서 기르

18) 『淸陰集』 卷 20, <吏曹判書辭免劄>, “民生苦樂 安危所係.”

19) 『淸陰集』 卷 17, <論時弊疏>, “民心至靈 安危之兆 灼然可徵.”

20) 송희경, 「청음 김상헌의 경세사상」, 『양명학』 41권, 한국양명학회, 2015, 265쪽 참조.

21) 『남사록』 上, 앞의 책, 102쪽. “大槩陸地之人 雖在沿海者 除非自己興利之事 則視往濟州 如入死地 皆欲謀避本島人 雖空往空返 得出陸也 如望天堂 此則余往來時所親驗 以此觀之 其中困苦之狀 槩可想矣 若官衙胥輩侵漁小民之事 何代無之.”

22) 『남사록』 上, 앞의 책, 103쪽. “雖云畜產之盛衰關乎一島運數 而其實在於官吏之貪廉如何也.”

는 소는 점점 귀해지고 값도 올랐다. 만약 10년 이내에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멸종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삼읍의 우부(牛簿)를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수령(守令)에게 과거의 폐습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공문(公文)을 이첩(移牒)하였다. 그러나 이 금지령(禁止令)은 내가 제주에 있을 때까지 이리라. 뒤에 오는 자가 누가 기꺼이 만들어 행하여 목지(木紙)를 몽진(蒙塵)하게 하려는가. 매우 마음이 아프다.²³⁾

청음이 안무어사로서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자신이 수령에게 내린 문서가 뒤에 오는 수령들이 이를 잘 지켜 필요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고 있다.²⁴⁾ 당시의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청음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음의 『남사록』을 살펴보면 “내가 지방민에게 물으니…”²⁵⁾, “내가 지방민에게 들으니…”²⁶⁾와 같이 제주의 여러 가지 풍속이나 현황 등에 대해 제주민에게 물음을 통해 답을 구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호문(好問)의 태도는 『중용(中庸)』의 “순임금은 크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순 임금께서는 무엇이든지 문기를 좋아하셨고 비근한 말들을 살피기를 좋아하셨다.²⁷⁾”는 배움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얌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격식을 타파하고 겸손하게 가슴을 여는 것이다. 지식은 선험적으로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역시 “지나가는 어린이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서슴치 말고 물어라”고 하면서 ‘물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23) 『남사록』 上, 앞의 책, 106-107쪽. “而余取簿考之 自正月至七月 所殺牛多至一百五十頭 又自私屯馬稀罕之後 守令等代馬驅來 兼且陸地兵火之餘 耕牛極少 公私貿出者 不計其數 以此民家牛畜漸貴 價亦騰涌 若之十年 不革此弊 殆將絕鍾而後已 余盡收三邑牛簿焚之 移文守令 毋踵前習 後此禁止 余在島時也 後來者誰肯奉行蒙塵木紙乎 甚可痛心.”

24) 『남사록』 上, 앞의 책, 107쪽, 「譯註」참조.

25) 『남사록』 上, 앞의 책, 85쪽. “余問土人”

26) 『남사록』 上, 앞의 책, 94쪽. “余聞諸土人”

27) 『中庸』6章.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以好察邇言 隱惡而揚善”

다.²⁸⁾ 이러한 측면은 특히 지도자에게서 요구되는 덕성으로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청음은 기본적으로 선정(善政)을 펼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음의 민생을 중시하는 정치관과 애민정신은 다음의 예에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

교생(校生)들을 불러 본도(本島)의 고사(故事)를 묻다가 애기가 폐막(弊瘼)에 미쳤다.

첫째, 말을 바치는 폐단이다(封送馬之弊). 삼읍 수령이 경내 품관이나 민가의 양마(良馬)를 장부에 올려 전마(戰馬) 또는 공마(貢馬) 명목으로 함부로 징발하는 폐단.

둘째, 생물가(生物價)의 폐단이다(生物價之弊). 민가의 소를 장부에 올려놓고 이를 생물가(生物價)라 하여 수령들의 연회용으로 절제 없이 도살하는 폐단.

셋째, 군관(軍官)을 두는 폐단이다(營軍官之弊). 군관들이 왜란 이후 인원이 늘어 40~50명에 이르는데, 무뢰배(無賴輩)·소인배(小人輩)로서 매사에 뇌물을 요구하며 위협하여 고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폐단.

넷째, 서울에 무역하는 폐단이다(京貿易之弊). 관에서 사냥한 노루의 뼈를 제주의 진상인(進上人)이 상경(上京)할 때 억지로 떠맡겨 값비싼 비단 등과 무역하여 이를 바치게 하는 폐단.

다섯째, 서울서 점마(點馬)가 오는 폐단이다(京點馬之弊). 서울서 온 점마관(點馬官)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을 점검하는데 동원하여 실농(失農)케 하는 폐단.²⁹⁾

이상 다섯 가지의 폐단을 들고는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 뿐 아니라 지방관의 가렴주구와 가혹한 수취가 제주민을 극단에 내몰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 결국 제주에서 모반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당시 제주의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³⁰⁾

28)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통나무, 2011, 134-135쪽 참조.

29) 『남사록』 下, 앞의 책, 130-131쪽. 본문의 내용은 『남사록』의 기록을 요약하여 서술한 것으로 『남사록』의 역주자(홍기표)가 「해제(解題)」에 소개한 내용이다. 홍기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해제 - 역사 서문에 대신하여」, 2009, 15쪽.

30) 『남사록』 上, 앞의 책, 「해제」15쪽.

이에 이상의 폐단 중 가장 큰 것은 위에 바쳐서 별로 쓸모가 없는데 얻기 어려운 것, 바다에 나는 좋은 물건들인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또 수령(守令)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포악한 행동을 하며 명분도 없이 강제로 빼앗는 일 등이 가지가지여서 한심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해외에서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침탈이 극도에 달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다. 비록 더러 듣고 본 바가 알려저도 뇌물이나 써서 일을 잘 처리하는 자는 죄를 얻는 일이 없다. 온통 한 섬을 무인(武人)들의 출세하는 땅이 되게 하니, 결국 못하는 짓이 없게 되었으니 끝내는 화란(禍亂)의 온상이 된 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³¹⁾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 볼 때 청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치인(治人)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 인물이었으며, 본질적으로 훌륭한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여겨진다. 「치인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계망을 맺는 작업이다.³²⁾」라는 신창호 교수의 해석을 인용할 때 김상헌이 제주 유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폐단을 듣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야 말고 치인의 근본적인 역할에 해당된다. 현대의 교육원리로서도 경청과 공감, 소통의 관계 형성에 해당하며 고통 받는 백성을 치유하는 인간중심 상담이론³³⁾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음은 “정사(政事)는 반드시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순응하는 것”³⁴⁾

31) 『남사록』 下, 앞의 책, 132쪽. “此是弊之最鉅者 若其上供無益難得者 海產尤物之禍民者 及守令誅求侵虐 無名抑奪之事種種 寒心不可殫說 海外無告之民 受其吞噬剝割 至此之極 而莫有知者 雖或播在聞見 而糞緣善事者 未嘗獲罪 付與一島爲武夫發身之地 窮無所不至 而卒釀禍亂者無足怪也”

32) 신창호, 앞의 책, 27쪽.

3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남사록』을 보면서 제주민에 대한 청음의 인식과 태도가 로저스(Carl 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이론과 기본 전제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인간중심 상담이론이 ‘인간과 모든 유기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 근거하는 점과 상담기법으로써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unconditional positive regard)’과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를 추구하는 점에서 그러한데 『남사록』에서 청음이 보인 태도는 이러한 점과 상당부분 닮아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준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하준, 「인간중심 상담과 철학상담의 친족성과 차이」, 『철학논총』 74, 새한철학회, 2013.

이라는 민본의식(民本意識)의 태도를 평생 동안 견지하였으며, 특히 군주의 수신(修身)과 더불어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關鍵)으로 민생의 안정을 중요시 하였다.³⁵⁾ 이러한 청음의 애민정신은 제주 안무어사 시절부터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수기치인’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특히 호문의 태도, 배려와 공감 · 소통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착한 본성에 대한 믿음의 태도 등은 현대의 교육원리에서 살펴보아도 아주 훌륭한 교육자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제주유림과 더 나아가 제주사람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시재설행(試才設行)과 문풍증진(文風增進)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제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적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중앙으로의 관계진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선시대 중앙 진출은 과거 합격으로 가능했지만, 제주의 경우 전반적인 교육문화수준이 낮았기에 과거에 합격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설사, 과거에 합격할만한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과거를 치르러 육지로 나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제주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회유정책의 성격으로써 시취정책(試取政策)을 시행하게 되는데 어사를 파견해 외방별시(外方別試)를 설행한다거나 전라도 문과초시 정원 1명을 제주에 할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과초시(儒生增補試)를 제주관위에 위임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인의 불이익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³⁶⁾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인조조(仁祖朝)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따라서 16세기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과거 합격자가 4명(고득중, 고

34) 『淸陰集』卷 22, <謹天戒順人心筭>, “大凡王者之政 必先於順人心 監於人心之如何而天意可知”

35) 송희경, 앞의 논문, 2016, 119-123쪽.

36)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21집, 1999, 510쪽 참조.

태필, 고태익, 고태정³⁷⁾ 밖에 되지 않았음을 볼 때 당시 제주의 교육적 환경을 짐작해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에서 역모 사건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조정에서는 제주에 안무어사로 청음을 파견하면서 별시의 임무도 부여하였다. 청음의 별시 시행은 앞서 살펴본 비변사의 17개 조목 중 13번째와 14번째 항목으로써, 「13. 본주 출신 금군(禁軍)과 병사(兵士)를 시험하여 합격 여부를 보고할 것과 14. 본주 유생에 대해 고강(考講)과 제술(製述) 시험을 보아 합격 여부를 보고할 것」³⁸⁾이다. 이는 예조(禮曹)에서 「제주유생(濟州儒生)에 대한 고강(考講)과 제술(製述)은 어사에게 합격자를 정해 아뢰도록 명을 내리시되, 고강은 경사(經史)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제술은 대제학(大提學)에게 출제(出題)하도록 해서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건의에 대한 선조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음은 10월 초8일 향교에 나가 시취(試取)하였다.

제주객사에서 머물다. 일찍 대청(大廳)에 나가 교생(校生)들을 고강(考講)하였다. 간혹 배강(背講)을 자원한 이도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임강(臨講)을 하였다. 통·략(通·略) 이상은 6이었다. 책은 경사(經史)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하였다.³⁹⁾

과거의 성적기준은 통(通)·략(略)·조(粗)·불(不) 등의 4등급으로 정하는데 대체로 통·략 이상을 통과자로 하였다. 위의 고강에서는 6인 이상이 합격한 셈이 되는 것이다. 다음날 인 10월 초9일에는 제술(製述)을 시취하였다.

제주객사에서 머물다. 일찍 관덕정(觀德亭)에 나가 교생(校生)의 제술(製述)을 시험하였다. 부(賦)는 「목란묘(木蘭廟)」, 시(詩)는 「독하번전유감(讀何蕃傳有感)」, 응시(立庭)한 사람이 12인이었다. 글을 다 지은(成篇) 사람은 7인, 합격한(入格)

37)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38) 『남사록』 上, 앞의 책, 36쪽.

39) 『남사록』 下, 앞의 책, 26쪽. “留濟州客舍 早出大廳 考講校生 或者願背講 餘皆臨講 通略以上六人 冊則經史中 亦許自願”

사람은 4인, 글 한 줄도 못 쓴(曳) 사람이 5인이다. 다음날 논(論)·표(表)를 시험 하고자 하였으나 성편(成篇)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⁴⁰⁾

처음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강(考講)에서는 6인이 합격권에 들었고, 특히 제술에서는 4인이 합격(入格)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4인의 합격자 가운데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정응정(鄭應禎)이다. 정응정은 제주의 과거 합격자 명단을 기록한 「용방록(龍榜錄)」이라고 일컫는 「진신선생안(縉紳先生案)」에 1601년(선조 34)에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었다.⁴¹⁾ 그러나 「국조방목(國朝榜目)」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아, 선행연구에서는 그를 문과 입격자로 보지 않기도 한다.⁴²⁾ 그러나 『제주사인명사전』에서는 그가 1601년 8월 김상헌이 제주안무어사로 내도하여 시취할 때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창방(唱榜)하기 전에 죽으니 봉상시사(奉常侍事)에 증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³⁾ 따라서 그의 합격 여부와 그가 「국조방목」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도 나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⁴⁾

40) 『남사록』 下, 앞의 책, 27쪽. “留濟州客舍 早出觀德亭 試校生製述 賦木蘭廟 詩讀何蕃傳有感 入庭十二人 成篇七人 入格四人 曳五人 翌日欲試論表 無成篇人云”

41) 제주교육박물관, 『譯註 耽羅實興錄』, 2013, 121쪽. 「鄭應禎, 宣祖辛丑榜 本 東萊 曾孫 希寬」

42) 이규복의 앞의 논문에서는 그러하다. 한편 제주도교육연구원에서 편찬한 『제주교육통사』에서는 정응정이 청음과 사제관계(師弟關係)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양진건의 「제주 오현의 교학활동 연구」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양진건의 『제주교육행정사』,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등의 연구에서는 「용방록」을 토대로 과거 입격자로 포함하고 있다.

43) 김찬홍 編,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38쪽.

44) 정응정 집안의 족보에서는 정응정의 문과 합격을 1661년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족보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정응정의 출생을 1601년이고 사망연도를 미상으로 표기 하였는데, 1601년은 출생연도가 아닌 사망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응정의 후손들과 연배차이를 고려했을 때 정응정이 출생은 1601년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족보에서는 1661년(현종 2)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 군자감정(通訓大夫 軍資監正)이라는 벼슬을 제수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은, 「제주지역 조사·수집 문증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 어도 진주장씨·조천 김해김씨·구좌 동래정씨를 중심으로」,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85-86쪽.

청음의 시취가 제주 교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조선조 제주의 별시 시행 가운데서 처음으로 입격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김상헌 이전까지의 조선시대 외방별시 시행은 「선조 29년(1596)년 경차관 유사원(柳思瑗)이 와서 시재(試才)하였다.⁴⁵⁾」는 기록 한 건 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기타 제주의 지방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입격자를 등재한 『국조문과방목』이나 『진신선생안』,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등에서도 이 당시의 입격자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확인되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제주의 별시 시행 가운데 김상헌의 안무어사시의 시취 시행에서 입격자를 처음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월 29일과 11월 초1일에는 무과 시험도 시행하였다.

제주객사에서 머물다. 아침에 관덕정(觀德亭)에 나가 제주목(本主) 출신의 금군(禁軍), 사병(士兵), 관속(官屬)들의 활쏘기(貫革)를 시험하였다. [양현(兩縣)의 사람도 또한 와서 시험 보았다.]⁴⁶⁾

제주객사에서 머물다.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다. 일찍 광양(廣壤)[주성(州城) 동남쪽 5리에 있다.]에 나가, 무사(武士)들이 말을 타고 활 쏘는 것(騎射)을 시험하였다. 저녁에 모흥혈(毛興穴)을 보았다.⁴⁷⁾

무과 시험에 입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사록』에서도 명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의미 있는 자료가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제주(濟州) 사는 이정선(李挺先) 등 8인도 여사를 보내 시재(試才)할 때에 초시(初試)에 입격하였다고 상소하여 전시에 직부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 또 연명으로 정소(呈訴)하여 강서를 면제시켜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자기들의 청원에 따라 강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체로 보아도 지극히 부당합니다만 제주는 아

45) 제주문화원, 『역주 탐라기년』, 2015, 125쪽.

46) 『남사록』 下, 앞의 책, 122쪽. “留濟州客舍 朝出觀德亭 試本州出身禁軍士兵官屬等貫革 兩縣人亦來試”

47) 『남사록』 下, 앞의 책, 122쪽. “留濟州客舍 曉行望闕禮 早出廣壤 濟州城東南五里 試武士騎射 夕見毛興穴”

주 먼 곳으로 복도와 다를 것이 없으며, 또 이들은 벼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는 자들이니 글을 모르면서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한 바, 그들도 강서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과거는 중요한 일이라 아래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⁴⁸⁾

위의 기사는 선조 35년(1602)의 기사로써, 청음의 제주 안무어사 복명(復命)과 같은 해(年)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어사를 보내 시재할 때 제주 출신 이정선 등 8명이 입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 기사의 시기와 내용으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어사는 청음이며, 이정선 등 8명이 무과 시험에 입격한 것이다. 이들은 외방별시에서 초시에 입격하였고, 따라서 전시에 직부 됨으로써 무과에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전시란 국왕의 친림하에 등급만을 정하였던 것으로 “전시에 직부한다(直赴殿試).”는 것은 곧 급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⁴⁹⁾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인들은 과거 급제를 원하는 하였으나, 서울에 나아가 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청음의 『남사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직(京職)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 역시 지지에 서울(京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벼슬하기가 어렵다. 제주 사람으로 재간과 물망이 있는 자는 진무(鎭撫)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풍속이 관아(官衙)에서 일보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 경직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⁵⁰⁾고 언급하고 있다.

청음은 제주 유림들이 경직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무과를 더욱 선호하며 그럼으로써 제주의 실정이 조정에 알려지지 않음에 대해 매우 안타

48) 『宣祖實錄』卷 155, 35년 10월 14日, 壬寅, “且濟州居李挺先等八人 亦於遣御史試才時 初試入格 上疏而許赴殿試 今又連名呈訴 願除講書 因其自願 而不爲講書 揆之事體 極爲不當 但濟州之絕遠 無異於北道 此等人 似是無望於仕路 而唯以得科爲幸者 雖不知書而得科 似不至有妨 亦爲除講 恐無不可 但科舉重事 自下擅便爲難 上裁施行何如?” 答曰: “允.”

49) 이규복, 앞의 논문, 16쪽.

50) 『남사록』 上, 앞의 책, 101쪽. “不貴京職 此亦地誌 京城隔遠 任宦爲難 土人有才幹物望者 求爲鎭撫 故俗以執事官衙爲榮 不知京職之貴”

까워한다.

“간혹 좀 글을 짓고 책을 강론할 줄 아는 자가 서울로 배우러 가고자 하면 수령들은 그 못된 짓 한 일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니 사람들이 종신토록 관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생(後生) 소년들이 유학(儒學)을 배우려 하지 않고, 간혹 잠깐 향교 교생에 들어 왔다가도 목표를 바꾸어 무과(武科)에 오릅니다. 이처럼 우리 향교 교생들을 부리니 백발이 다되도록 이룬 것도 없으며, 집은 매우 가난하여 우리네 일생은 고통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흐느껴 울기도 하며 탄식을 내뱉는데 얼굴빛은 매우 슬퍼 보였다. 해외(海外)의 일이 이렇게 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조정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⁵¹⁾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음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목민관으로서의 자기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청음은 제주의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 대해 개선해 주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교생(校生)들이 모두 교정(校庭)에 와서 호소하기를, “난리가 있는 뒤로부터 임시 조치로 방학(放學)을 해서 오랫동안 훈도(訓導)가 없습니다. … 바라건대 이런 뜻을 조정(朝廷)에 건의하셔서 다시 훈도를 두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나는 매우 가상히 여겨 기쁘게 이러 한 뜻을 곧바로 임금께 아뢰겠다고 대답하였다.⁵²⁾

청음은 이처럼 제주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것은 제주의 삼읍 향교를 모두 방문하고, 그 곳 교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주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음이 제주에서 교수자로서 직접적인 수업을 하거나 제자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제주인

51) 『남사록』 上, 앞의 책, 191쪽. “間有稍知 綴文講書者 欲赴京學 則守令輩 慮有漏洩其無狀之事 禁不得出入 多至終身廢錮 以此後生少年 不樂業儒 或乍入校籍 旋登武謗 蓋徵於吾輩 自首無成 家徒四壁 只是一生茹酸含苦 言罷 或有歔歔歎息 容色甚慙者 海外之事 至於如此之甚 而朝廷無路得知 誠可痛也”

52) 『남사록』 下, 앞의 책, 81쪽. “校生等齊來庭訴曰 自亂離以後 權宜放學 久無訓導 … 請以此意 上達朝廷 復設訓導 余心嘉喜 卽答以此啓聞”

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애정은 제주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지리적 여건과 수령들의 억압으로 인해 과거 응시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청음의 내도(來島)에 따른 별시 시행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조 제주에서 처음으로 별시로 인한 입격자를 선정하여 직부케 한 것으로써, 제주에 대한 조정의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주의 유생들은 과거 합격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을 것이며 따라서 제주 유생들의 학습동기가 충만(充滿)해졌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결국 청음의 내도와 시재 실행은 전반적인 제주의 문풍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청음 이후 어사 시재의 파견과 제주 지역 별시 합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사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조 1년에 시재어사(試才御使) 최진운(崔振雲)이 파견⁵³⁾되었으며 제주인 오섬(吳澁)이 급제하여 직부전시하게 하였다.⁵⁴⁾ 그 이후 제주지역에 어사가 파견 되어 문과에 급제한 인원은 총 37명에 이른다.⁵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음이 제주 안무어사로 파견되기 전 과거 합격자가 4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인조 이후 제주의 시재 실행은 다양한 환경 및 정치적 변화에 따른 정책의 결과로써 그 이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에 청음의 안무어사 임무 수행과 시재 시행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음이 제주에 끼친 교육적 영향은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3.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선현추숭(先賢追崇)

다음으로 『남사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청음의 교육적 태도는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선현에 대한 추숭의 모습이다.

53) 『仁祖實錄』, 卷 3, 1年 9月 23日, 庚戌, “試才御史崔振雲病死於濟州”

54) 『仁祖實錄』, 卷 3, 1年 윤 10月 2日, 戊子, “遣官濟州, 試儒生, 取其試券, 命大提學考其等第, 賜進士吳澁直赴殿試.”

55) 이규복, 앞의 논문, 참조.

청음은 안무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제주와 제주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목민관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의 모습이였다. 또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엄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문화가 주체적으로 확립된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에 입각하여 청음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음은 제주인에 대한 애민의 정신과 함께 인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또 다른 모범이였다.

일반적으로 『남사록』은 기행문학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기행문학의 전형(典型)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체 형식이나 출발(出發)-노정(路程)-목적지(目的地)-회정(回程)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 등이다. 그런데 『남사록』은 기행문학이라기 보다는 당시 제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향토사(鄉土史)」로서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남사록』은 당시의 제주 상황과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 17세기 초반의 제주 실정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내용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⁶⁾ 특히 자신의 임무 수행 이전에 기록된 제주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서술하여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청음이 인용한 자료는 『제주지지(濟州地誌)』,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충암(沖庵)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도근천중수권문(都近川重修權文)」·「존자암중수기(尊者庵重修記)」, 백호(白湖)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冥小乘)』 등 다수의 문헌들이다. 그 외에 『남사록』 소재 한시 106제(題) 176수(首) 중 청음의 한시 66제 119수를 제외한 다양한 한시를 인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암 김정의 「우도가(牛島歌)」,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탁락가(毛羅歌)」 14수 등이다.⁵⁷⁾ 청음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사실에

56) 『남사록』 上, 앞의 책, 16쪽.

대해 명확히 인식한 후 현재 자신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청음의 태도는 조선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역사관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것은 우리가 『실록』 등의 자료에서 발견하는 술한 상소문 중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지 않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표면화시켜 공론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그들은 역사를 끊임없이 현재화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역사는 과거이자 현재였던 것이다.⁵⁸⁾

청음 역시 제주의 이전 기록들을 토대로 제주의 과거를 현재로 끌어 들였다. 제주의 역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야만 현재의 제주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청음은 제주의 건치연혁·문화·풍속·풍토 등을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것이다. 즉, 문화적 배경 자료로써 제주의 역사를 인식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남사록』에서 보이는 그의 역사의식은 역사적 사실과 문헌의 증거를 중요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밀한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합리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⁵⁹⁾ 다음은 청음의 『남명소승』을 통해 제주의 금곶(金橘)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남명소승. 해산물로는 복어(鰻漁)·옥두어(玉頭漁)가 많이 잡힌다. … 그 중 금곶이 색이나 맛 모두 일품이다. 집집마다 푸른 치자나무를 잘라서 아침저녁으로 밥 지을 때 뽕감으로 쓰기 때문에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향기로운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과장된 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⁶⁰⁾

57) 『남사록』소제 한시의 목록, 각종 문(文)의 목록, 『남사록』에 인용된 자료의 주제 및 성격 등에 대해서는 『역주 남사록』 下, 361-370쪽에 부록으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58) 오향녕, 「역사를 읽는다. 경험과 성찰」,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13쪽 참조.

59) 오석원, 앞의 책, 81쪽 참조.

60) 『남사록』 上, 앞의 책, 107-108. “南冥小乘 海錯則鰻漁玉頭漁爲多 … 而惟金橘色味俱絶 家家斫綠梔 朝夕爲爨 故村居二三里 香風不斷 此乃鋪張之辭 其實不

『남명소승』에서의 설명이 과장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사록』이 후대의 사료로써 가치가 더욱 큰 점은 이러한 청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서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음은 이러한 합리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유가적 역사관의 오랜 전통인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입장을 취하는데⁶¹⁾, 『남사록』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사실 관계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 서술을 펼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암의 수정사중수기에 말하기를, “민간의 풍속이 비루하고 어리석으며, 뎃을 놓아 죽이기를 좋아한다. 무릇 질병과 재앙, 이득과 손실, 화(禍)와 복(福)등을 빌 때는 한결같이 신(神)에게서 듣는다. [이 풍속은 지금도 오히려 고쳐지지 않고 광양(廣壤)과 차귀(遮歸)등의 음사(淫祠)에는 통소와 북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지방민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기를 하늘처럼 한다.]… [“만약 나올 수 없다면 속히 죽음에 이르도록 귀신에게 빈다. 그 이유는 오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면 모두들 효성(孝誠)이라고 칭찬한다.”고 한다. 이는 대개 야만의 풍속이 아직도 다 변하지 않은 것이다.]⁶²⁾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청음은 제주의 풍속·문화·풍토 등에 대해 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을 각주로 달아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개 야만의 풍속이 아직도 다 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황 인식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개진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의 삼성신화(三姓神話)에 대한 『남사록』의 기술이다.

지지를 살펴보면, 모흥혈은 성(城) 남쪽 5리에 있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至於此”

61) 오항녕, 앞의 책, 411쪽 참조.

62) 『남사록』 上, 앞의 책, 98쪽. “又沖庵水精寺重修記云 氓俗 鄙而癡野 機而好殺 凡有所祈禳病厄得喪禍福 一聽於神 此俗猶不革 如廣禳遮鬼等淫祠 簫鼓不絕 土人敬畏如天 … 若不可廖 願鬼速令就死 毋爲久苦也 如此者咸稱孝誠云 此蓋蠻風之未盡變者”

처음에는 사람도 생물도 없었는데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 솟아 나왔다. 또 이
르기를 삼성(三姓)의 출현은 구한(九韓)때이다. 지금 한라산(鑛山)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毛興)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세 신인이 나온 땅이다. 첫째는
양을나(良乙那), 다음은 고을나(高乙那), 그 다음이 부을나(夫乙那)이다. 세 사람
은 궁벽한 황무지를 돌아다니며 사냥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고
기를 먹고 살았다. ...⁶³⁾

청음은 이와 같은 제주의 시조신화를 언급하여 기록함으로써 제주의
역사적 전통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료를 인용한 후에는 모흥혈(毛興穴)
이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황량한 고혈(古穴)에 싸늘한 안개 자옥한데
세 분 처음 나온 것이 몇 해나 되었는가.
그 당시 자연스레 제 짝 찾아 돌아갔고
훗날에는 응당 다시 신선이 되었으리.
오랜 세월 제사 올리는 유풍 아직 남아있고
백세토록 혼인하는 옛 풍속 지금까지 전하네.
무너진 비(碑)를 다시 세워 그 장소 기록하니
금강사(金剛寺) 밖의 사직단(社壇) 앞이라네.⁶⁴⁾

위의 시로 볼 때 삼성신화를 기록한 청음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삼성신화를 어리석은 제주인들이 믿는 신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의 오랜 전통과 주체성을 인정해 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청음은 교육과 관련된 배경지식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향교(鄕校)는 옛날에는 성(城) 북쪽에 있었는데 황폐해도 수리를 못하다가 목
사(牧使) 김태정(金泰廷) 때에 성(城) 남쪽으로 옮겨 지으니 바로 충암(沖庵)이

63) 『남사록』 下, 앞의 책, 123쪽. “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又曰三姓之
出 正當九韓時 今鑛山北麓 有穴曰毛興 是此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次曰
夫乙那”

64) 『남사록』 下, 앞의 책, 126쪽. “毛興穴, 荒涼古穴鎖寒烟 首出三人間幾年 當日自
然歸伉儷 後來應復返神仙 千秋香火遺風在 百世婚姻舊俗傳 欲起頽碑記處所 金
剛寺外社壇前”

귀양살이 하던 집터이다. 충암묘(沖庵廟)는 성전(聖殿) 남쪽 담장 밖에 있다.⁶⁵⁾

그리고 향교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남사록』에 수록하고 있다. 1536년(중종 31) 윤구(尹衢)가 기록한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와 같은 해 심연원(沈連源) 목사의 「중수명륜당서(重修明倫堂序)」가 그것이다. 그리고 임제의 「충암선생사당기(沖庵先生祠堂記)」와 최사물(崔四勿)의 「충암선생사식령후발(沖庵先生祠式令後跋)」도 수록하고 있다.

임제의 「충암선생사당기」에는 “사우는 장차 잊혀지지 않고 받들어 추모함으로써 그 영령(英靈)들을 오래도록 사당에서 제사 받을 수 있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선생의 학문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를 따랐고, 뜻은 요(堯) 임금이나 순(舜) 임금과 통하였다.”라고 하면서 충암의 높은 도학(道學)을 숭상하고 있다. 또한 “선생은 인(仁)에 살고 의(義)로써 행동하니 그 덕(德)은 지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나약한 이들에게는 그 뜻을 굳게 세워주고 탐오한 이들에게는 염치를 알게 하였으니 그 공(功)도 크다. 공적으로 보나 덕화로 보나 이는 사당에 모실만 하지 않은가⁶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음은 9월 29일 충암 선생 사당에 배례하였으며⁶⁷⁾, 10월 25일 충암사(沖庵祠)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문(祭文)이 『남사록』에 수록되어 있다.

모월 모일 안동(安東) 김상헌(金尙憲) 삼가 맑은 술과 제물로 충암(沖庵) 선생의 혼령에 공경히 제를 올립니다.

아아.

선생의 높으심이며, 우리의 도(道)를 주창하심이. 선생의 막힘이며, 사림(士林)의 원통히 여기도다. 한 번 배척되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먼 곳에서 삶

65) 『남사록』 上, 앞의 책, 191쪽. “鄉校舊在城北 荒廢不修 牧使金泰廷時 移柁于城南 則沖庵謫居遺址也 沖庵廟在聖殿南牆外”

66) 『남사록』 上, 앞의 책, 212-217쪽. “則祠 德可以警世 則祠 其祠也 盖將以圖不朽 起敬慕 而其英靈精爽 足以廟食乎千秋者 … 先生學追鄒魯 志回華勛 … 況先生居仁由義 德之至矣 立懦廉貪 功亦大矣 功也德也 此可祠乎”

67) 『남사록』 上, 앞의 책, 190쪽. “仍拜沖庵先生廟”

을 마감하셨네. 어찌 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는 길 모두 상처를 입나이까. 하늘의 태양은 다시 빛나고 원통한 죄목 잘못되었음이 밝게 드러났네. 구천 길 이 밝아지고 오복(五服)은 다시 분명해졌네. 아득히 먼 이곳 제주 섬나라에 봄 산의 풀 향기 흐리고 남기신 풍모가 사모함을 일으켜 제사를 지낼 사당을 세웠네. 변변치 못한 후생(後生)이 일찍이 아름다운 명성 받아들이고자 공무 보던 여가를 틈타 삼가 뵙고는 우리르고 옛 생각에 잠기며 서성거리네. 겨우 보잘 것 없는 정성을 차려 놓으니 푸른 굴(橘)과 누런 감(柑). 아아. 백세가 지나도록 끝 내 잊을 수 없나이다.⁶⁸⁾

충암의 높은 도(道)를 추송하는 한편, 충암의 뜻이 꺾여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충암의 아름다운 명성(風飮遺芳)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르고 사모하는 마음(瞻溯彷徨)을 표현하면서 백대 세월이 흐른 뒤에라도 그 정신은 잊을 수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충암은 기묘사람(己卯士林)의 일원으로서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이른바 삼대(三代)의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던 신진 사류(新進士類) 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개혁정치는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해 좌절되지만 후대의 사림들은 조광조를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道統)으로 확립하여 사림의 정통 연원(淵源)으로 보았다. 청음 역시 조광조가 배향된 심곡서원(深谷書院)의 중건 상량문을 짓고, 조광조의 도통과 학문을 추송한다.⁶⁹⁾ 조선의 사림들은 조광조와 학문적 연원을 함께 하며,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충암 김정 역시 깊이 추송하고 정신적 사표로 여긴다. 따라서 청음이 충암을 숭모하고 그에게 제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충암사는 훗날 제주의 사액서원인 굴림서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곳에 청음 자신도 현종 10년(1669)에 배향된다. 청음이 약 70년 전에 충암의 영혼을 기리며 제사지냈던 곳에 자신도 배향됨으로써 두 지식인의 정신적 가치는 후대에 이르러 동일한 대의(大義)로 받아들여지게 된

68) 『남사록』 下, 앞의 책, 120-121쪽. “嗚呼 先生之泰兮 吾道其昌 先生之否兮 士林其殃 一斥不復 千里歸藏 豈惟識者 行路皆傷 天日重輝 覆盆生光 九原未昧 五服再章 邇此海國 春山草香 流風起慕 祀享有堂 眇余後生 風飮遺芳 公餘祇謁 瞻溯彷徨 聊薦菲誠 橘綠柑黃 嗚呼百世兮 終不可忘.”

69) 『淸陰集』 14권, 上樸文, 「深谷書院重建上梁文」在龍仁先生墓傍」

다. 충암사는 현종 6년(1665)에 최진남(崔鎭南) 관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사(祠)로 하고 장수당을 재(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현액(懸額)하였다.⁷⁰⁾

현종 10년(1669)에는 청음과 동계 정온을 배향하여 숙종 1년(1675) 삼신(三臣)의 서원으로 사액(賜額)을 요청해 보지만 비변사에 의해 거절되었다.⁷¹⁾ 숙종 8년(1682)에 가서야 송인수(宋麟壽)를 배향하면서 사신서원(四臣書院)으로 사액되어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⁷²⁾ 숙종 21년(1695)에는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함으로써 오현배향(五賢配享)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⁷³⁾

청음이 제주 안무어사 시 보여준 다양한 교육적 모범은 제주 유림들에게 큰 선비의 전형을 직접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청음이 충암 사당에 배알하고 제문을 지어 추송하는 모습은 당시 사문(斯文)의 토대가 없던 제주의 유림들에게는 선현존숭(先賢尊崇)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 보급운동을 주도하고 서원의 의미를 확립시킨 퇴계에 의하면 서원에서의 사현(祀賢)행사는 단순한 보본(報本)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원유(院儒)로 하여금 그 제향인물의 학문과 사람됨을 본받아 장수(藏修)하려는 마음(感興發起之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한다.⁷⁴⁾ 이러한 점에서 청음이 추송했던 충암선생과 청음의 제주 굴림서원 배향은 제주 유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으려는 교육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제주 교육사상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70) 金錫翼, 『耽羅紀年』, “顯宗 六年 判官崔鎭南 移建沖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橘林書院”

71) 『肅宗實錄』 元年 9月 庚戌 “三臣書院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 言賜額事 重有難輕議”

72) 金錫翼, 앞의 책, “肅宗 八年…以宋麟壽 金尙憲 鄭蘊 從享于沖庵廟 仍宣 額曰橘林書院”

73) 金錫翼, 앞의 책, “二十一年 以文正公宋時烈 從享于橘林書院 宋時烈 字英甫 號尤菴 恩津人 己巳春淪 謫本州 踰月被逮 受後命于中道 官左議政從祀文廟”

74) 정만조, 「退溪學派의 書院(敎育)論」, 『남명학연구』9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9.

Ⅲ. 맺음말

본 연구는 청음의 『남사록』을 교육학적으로 분석한 의미 있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가지 외에 다른 교육적 태도를 더 논의하지 못한 점과 그가 제주에 남긴 교육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시제 실행 이후의 사풍증진이나 선현 추숭의 모습에서 논의한 사문의 인식 개선과 같은 내용은 구체적 사례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료에 의존한 실증주의적 교육사관으로는 제주 교육의 연구 영역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료라는 것이 지니는 정치성과 중앙집권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지방교육사 영역에서는 분명한 논리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형식교육의 측면이 아닌 비형식교육의 사상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청음이 남긴 교육적 태도가 비형식교육으로서 분명히 제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굴림서원 배향과정에서 배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와 함께 제주오현 배향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의 주체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때 본 논문이 논의해 왔던 청음의 교육적 태도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桐溪集』

『淸陰集』

『沖庵集』

『남사록』상, 홍기표 역, 제주문화원, 2008.

『남사록』하, 홍기표 역, 제주문화원, 2009.

강봉수, 『유교 도덕교육론』, 2001, 원미사.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통나무, 2011.

김찬흠 編,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박준호, 「제주도와 관련된 기행록 및 遊記에 대하여」, 『대동한문학』제7집, 대동한 문학회, 1995.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南槎錄』고찰」, 『탐라문화』제2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6.

송희경, 「청음 김상헌의 경세사상」, 『양명학』41권, 한국양명학회, 2015.

_____, 「金尙憲의 節義意識과 人文精神에 關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6.

신창호, 『한글대학·중용』, 원미사, 2015.

양진진, 「濟州五賢의 教育活動 研究」, 『탐라문화』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_____,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_____,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21집, 1999.

_____,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오석원, 『한국 도학과의 의리사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2.

오항녕, 「역사를 읽는다. 경험과 성찰」, 『조선 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왕소명, 「김상헌의 『南槎錄』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南槎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하준, 「인간중심 상담과 철학상담의 친족성과 차이」, 『철학논총』74, 새한철학회, 2013.

임홍선, 「김상헌의 『南槎錄』」, 『論文集』제23집, 제주교육대학교, 1994.

정만조, 「退溪學派의書院(敎育)論」, 『남명학연구』9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9.

제주교육박물관, 『譯註耽羅實興錄』, 2013.

제주문화원, 『역주탐라기년』, 2015.

조미은, 「제주지역 조사·수집 문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 어도 진주강씨·조천 김해김씨·구좌 동래정씨를 중심으로」, 『장서각』34, 국학중앙연구원, 2015.

최두식, 「『南僊錄』소재시의해양소재연구」, 『석당논총』제18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원, 1992.

홍기표, 「淸陰金尙憲의『南僊錄』소재기사 오류 및 쟁점」, 『한국사학보』40집, 고려사학회, 2010.

황금중, 「조선시대 교육의 성리학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과제」, 『한국교육사학』29집, 2007.

황만기, 「『南僊錄』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작가의식」, 『동방한문학』36집, 동방한문학회, 2008.

Abstract

The Study on Cheongum Kim Sangheon's Educational Attitude and its Meaning on <Namsarok>

Kang Dong Ho·Yang Jeon Gun

This study aimed to consider Cheongum Kim Sangheon's educational attitude and its meaning based on 'Namsarok' when he was a Jeju Anmuesa. While he was performing his duties as a Jeju Anmuesa, he had showed educationally meaningful attitude so he was respected as one of the Jeju Ohyun in Gyulim Seowon where it is the only Saek Seowon in Jeju island and worshiped by Jeju Confusion scholars.

First of all, educational attitude that he showed was the positive perception and love for the Jeju people. Especially, the image of true educational philosopher was showed by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the difficult surroundings through various conversations and communications with Jeju people. Secondly, there is a meaning to practice material for poetry for his duty as an Anmuesa. It was the first example that Cheongum's material for poetry was used to pass the exam. Therefore, by his practice, Jeju Confucian scholars experienced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 kjaca32@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 yjgeon88@jejunu.ac.kr.

Josun dynasty's consideration, and it contributed to make them study and enhance their spirits. Next, it was concrete attitude of awareness about Jeju's history and culture. It was the attitude that he considered Jeju as a independent and positive island, and it could be a chance to consider his view of history. Furthermore, the aspect to respect Choongam Kim Jeong was the model among Jeju Confucian scholars, and helped to cultivate moral and religious development. Jeju Confucian people respected him as one of Jeju Ohyun due to his educational attitude in Gyulim Seowon.

This study has a big meaning that it can consider the reason that Cheongum Kim Sangheon was canonized with educational effects on Jeju. In other words, Cheongum was canonized in Gyulim Seowon because he showed attitude of loyalty spirit and educational effects on Jeju as well. In this respect, it is considered that it offered the clue to establish identity of Jeju educational history.

Key words : Cheongum Kim Sangheon, Namsarok, Anmuesa, Gyulim Seowon, Jeju Ohyun.

교신 : 양진건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jgeon88@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4. 30.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